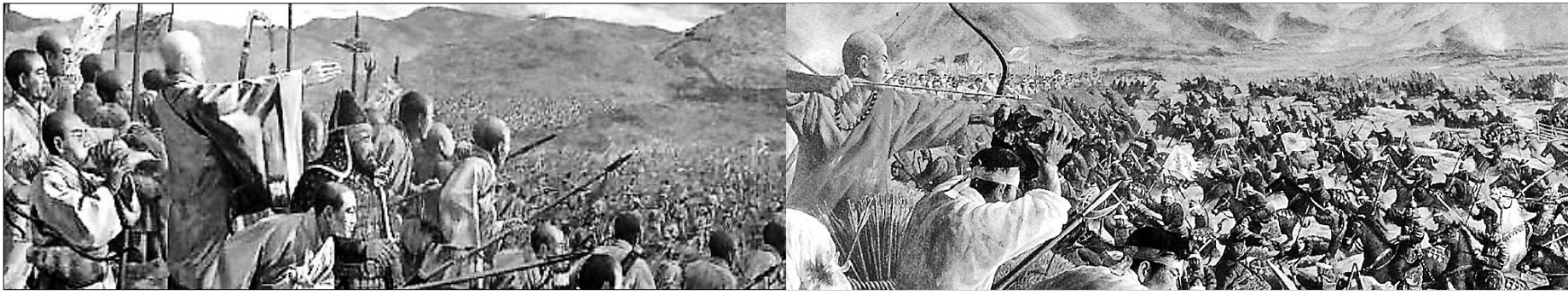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불교에 대한 국가인식 바뀌었나?



“총섭제도 등 위상 변화 있었다”

이중수 순천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조선왕조실록 기록 및 승려 비문과 문집을 살펴보고 양란 이후 국가차원에서 불교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양란 이후 총섭제도를 통해 승단은 국가 통제권이 들어가게 됐다. 총섭제도는 군사조직으로서 종교적 의미에서 본다면 비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승려들이 국가적인 질서 안으로 편입된 점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승려 비문이 유학자들에 의해 씌이고, 또 이 무렵 배불상소 또한 현재처럼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세기 이후부터는 승려들은 호적에도 등재돼 백성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원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현존하는 많은 사찰 건축물들이 이때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역으로 불교계의 정치활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많은 승려들이 중앙 정치무대로 찾아가 고려시대처럼 불교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양란 이후 불교계는 중앙진출보다는 지방 산중에 거처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불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는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고 불사를 통해 불교를 발전시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러한 모습이 중국과 일본과 다른 특색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전통이 오늘날 한국불교와 직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시대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던 승려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수행했다.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중수 순천대 HK 교수

양란 이후 불교계 변화와 동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불교계는 호국불교라는 기치 아래 의승군 활동을 벌였다. 이 양란 이후 불교계는 안팎으로 크게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두고 사회활동에 따른 유학자들과 국가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주장과 여전히 억불정책은 계속됐다는 주장이 8월 15일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남양주 봉인사에서 연 제7회 광해군 추선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산성 축조 등에 이용한 것일 뿐”

이성은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고 교수의 논점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억불정책을 지속하고 하지 않고 한 것은 군주의 성향과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억불정책’이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승려를 군인으로 동원기 위해 국가로부터 그럴 듯한 직함도 받고 대우도 받았으나 전란이 끝나자 곧 성 쌓는 데 동원됐다. ‘총섭’이라는 허명의 직책을 제수하며 불교를 약화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산성 축조와 경비에 승려들이 동원된 점을 억불정책의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전란 이후 산성축조에 전국사찰에서 1년 6회 700명이 차출됐다. 그 제반경비 조차 사찰과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출신 속가의 재산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이 부역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려를 고용하는 변전제도가 생기고 이 제도가 갑오경장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양란 이전보다 유학자들이 쓴 승려 비문의 양적 증가가 불교계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주장에 대해 “승려 비문의 양적 증가는 비문의 양적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승지 제수 등이 늘어났거나 양란 이후 승려의 사유재산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양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내내 불교의 역할은 국가의 제례와 능원과 서원의 수호, 표창사 관리 등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란 이후 사찰 주체 수륙재 개설이 늘어 왕실과 민중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인다”며 “한국 불교사의 주체를 소수의 출가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부대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

“불국사 다보탑, 3층 아닌 2층이다”

최민희 박사, 신라사학회 학술세미나서 주장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다보탑은 전형적인 신라석탑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닮은 탑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다보탑을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4층설과 3층설 등 다양한 양식 해석이 있어왔다. 최민희 박사(경주 화랑중 교사)는 8월

22일 경주대에서 열린 제147차 학술발표회에서 ‘균제와 착시로 본 불국사 다보탑의 층수’를 통해 다보탑 양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최 박사는 “다보탑은 기단을 비롯한 아래는 사각형이며, 중간부터 상륜부까지 팔각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석가탑과

차이를 보인다. 불국사에서는 석굴암과 달리 비대칭을 우선으로 하여 다보탑은 2층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어 “지대석과 기단, 그리고 탑신부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해 보면 2층탑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갖가지 장엄으로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며 “2층탑임에도 3층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3층탑인 석가탑과 대칭으로 보이도록 조성한 까닭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종립학교서 불러진 ‘항일 학도가’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 ‘불세존기념창가’ 공개

일제시대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불러진 일본의 조선 침략에 항거하는 내용의 ‘항일노래’가 공개됐다.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는 8월 13일 1910년대부터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불러진 ‘학도권면가’를 공개했다. 학도권면가는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소년 학도로서 부처님을 본받아 공부에 힘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교수는 “권상노 스님과 김지순 스님이 1911년 3월 조선총독부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발행된 <불세존기념창가>에 나오는 학도권면가”라며 “이번에 발굴한 <불세존기념창가>는 불교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창가집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1920년대에도 이 곡이 계속 불렸다. 항일노래로도 활용됐다”며 “학도가 노래 곡조에 학도권면가 가사를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수가 발굴한 <불세존기념창가>는 ‘열반일 기념가’ ‘성도일 찬송가’ ‘탄신 경축가’ ‘학도권면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1911년 3월 20일 교과용도로서 허가된 전국 불교계 학교에서 도서로도 활용

학도 권면가 (學道勸勉歌)	
1. 학도의 권면가 (勸勉歌)	권면에 귀속을 정할 부처님 (佛上, 佛上, 佛上)
2. 불교에 대한 열정 (熱心)	왕위에 오른다 (王位, 王位, 王位)
3. 학업의 권면 (勸學)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4.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5.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6.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7.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8.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9.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10. 권면의 열정 (熱心)	소년 장성이야 (少年, 少年, 少年)

됐다.

이날 노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육종가 등 ‘항일노래’도 함께 공개했다. 노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가와 혁명가들이 부른 ‘항일노래’ 100여곡 수집했다. 노 교수는 기존 발굴 250곡에 이번 100여곡을 보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항일음악 350곡’ 노래집을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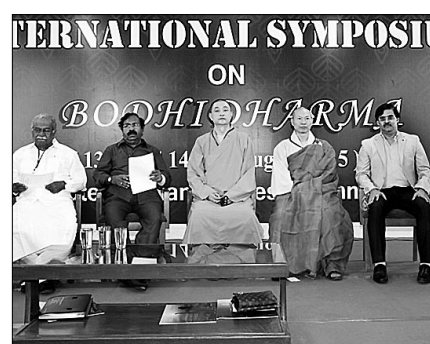
한편, 중앙대 국립대학장을 지낸 노 교수는 ‘음악기화’ 등 400여 편의 국악 관련 논문과 <한국근대음악사> 등 30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선연구소, 印아시아학연구과 심포지엄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8월 13~14일 인도 아시아학연구소에서 ‘보리달마’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와 인도 아시아학연구소의 교류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인도 정부의 지원과 중국의 소림사, 일본의 세계보리달마학회, 홍콩의 보리달마보편연합, 모리셔스의 타밀다아스포라국제협회 등 18개국 8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장 진월 스님의 ‘한국의 보리달마 유산과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차문화연구소의 선차 시연, 보리달마의 고향인 칸치프람과 중국형 포구였던 마하마르프람 등



문화유산 답사로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장 진월 스님은 “앞으로 선연구소와 아시아학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고 국제 학술교육 협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약탈 문화재 반환에 남북 공조 시작

남북 불교계가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화재재단차리 대표 해문 스님은 8월 17일 “오는 26일 개성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만나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조선대원수 투구와 오쿠라문화재단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문제는 현재 일본의 도쿄간이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9월 17일 제 2차 조정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해문 스님을 비롯한 남북불교계와 북한 조불련 측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정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단)

케기보경사 염불대학원 법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원 법음범패 1년 과정

- 교육과정 -

중급과정(법음, 범패) 1년 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39위작법, 지정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 : 일관스님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에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 수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리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262-1117(보경사 총무소)
010-9361-5566 (일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